

# 野 '육참골단' 쇠신 태풍 몰아칠까

### 진용 드러낸 새정치 김상곤 혁신위 재야파·운동권 전진배치

### 비노 "범친노 인사 편중현상" 지적...계파 갈등 재현 우려

새정치민주연합의 미래를 좌우할 '김상곤 혁신위원회'가 10일 진용을 드러내면서 육참골단(肉斬骨斷)의 쇠신 태풍이 몰아칠 것인지 주목되고 있다.

일단 혁신위원들의 면면이 간단치 않다. 내부 인사인 재선의 우원식(58) 의원과 박우섭(60) 인천 남구청장은 재야에 뿌리를 둔 고(故)김근대 의원 계열의 민평련 소속으로 진보 성향의 범친노 진영으로 분류된다.

지역위원장 몫인 최인호(49)부산 사하갑 지역위원장은 부산대 총학생회장 출신의 핵심 친노 인사로 꼽힌다. 여기에 외부 인사인 민변 출신의 정재용(51) 변호사, 임미애(49) 경북 FTA대책 특별위 위원도 소위 '86 그룹(80년대 학번·60년대 출생)' 운동권 출신이다. 특히 조국 교수는 친노 및 4선 이상 중진 공천 배제, 호남 물갈이론 등을 근간으로 하는 '육참골단'의 과격적 쇠신책을 공개 제한한 바 있다.

당장 혁신위원의 절반 이상이 재야 및 운동권 출신에 진보 성향이라는 점에서 강력한 쇠신안이 제시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여기에 지역, 직능, 나이, 성별 등 다양한 목소리를 혁신위에 참여시켰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우려도 만만치 않다. 혁신위 출범 배경이 '이기는 정당'을 만들기 위한 것이지만 혁신위 인선이 중도 및 민생에 방점이 찍히기 보다는 재야, 운동권, 진보 성향에 치우치면서 확장성에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비주류 진영에서는 친노 및 친문 성향의 인선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혁신위에 친노 주류 진영의 입김이 보이지 않게 작용하면서 혁신을 명분으로 차기 총

선 공천에서 비주류 의원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중도 성향의 전남 모 의원은 "혁신위원 인선이 실망스럽다"며 "특정 계파와 특정 성향의 위원들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면서 어떻게 혁신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

겠느냐"고 반발했다. 이를 반영하듯, 김상곤 위원장은 "혁신위에서 기준과 원칙에 따라 토론하고 의견을 모을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냈으며 문재인 대표도 "중요한 것은 국민 높이에서 혁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혁신위원들의 정치적 중립감도 크지 않아 총선 공천 방식 등 민감한 현안들을 논하게 다를 수 있는 동력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전반적인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혁신안 도출에 실패하면

서 '그들만의 혁신'을 강행, 오히려 내부 분열이 증폭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혁신위가 계파 이해관계에 휘둘리지 않는 당내 소통 구조를 만드는 것이 우선 과제라는 지적이다. 여기에 차별화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혁신안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숙제도 주어졌다.

하지만 모두가 공감할 수 없는 혁신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상당한 논란과 진통은 피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운데)와 김춘진 의원(국회보건복지위원장) 등이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사협회 메르스 대응센터를 방문, 추무진 대한사협회장(맨 오른쪽)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 김상곤 새정치 혁신위원장 인터뷰

## “호남 물갈이론, 동의하지 않는다

## 혁신 결과물 9월 추석상에 올릴 것”

김상곤 혁신위원장이 지난 9일 광주 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호남 물갈이론’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혀 주목 받고 있다.

그는 “정치적 뒷발이라는 이유로 호남이라는 특정 지역에 대해 ‘물갈이론’을 제기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기득권을 내려놓는다는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과거보다) 보다 엄격한 공천이 이뤄지겠지만 일괄적인 원칙과 기준이 적용될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하지만 지난 보궐선거 결과에서 나타났듯이 호남 민심이 지역 정치권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는 지적에 “잘 알고 있다”며 “호남과 영남 등 지역적 상황과 현실이 다르다는 점에서 기본적인 원칙을 토대로 그에 맞는 유연한 공천 방식이 적용될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김 위원장은 광주를 중심으로 한 호남 민심의 엄중함에도 깊은 우려를 보였다.

김 위원장은 “광주 출신(광주일고-서울대 졸업)이다 보니 아무래도 호남 민심에 대해 비교적 많이 듣는 편”이라며 “호남 민심은 새정치연합에 정권 창출을 위한 변화와 혁신을 요구하

며 강한 질책을 보이는 흐름과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흐름이 충돌하는 경계에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그는 “혁신위원회에서도 당의 혁신과 변화에 있어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호남 민심은 결국 새정치민주연합을 버리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내 갈등의 가장 큰 요인으로 지적 받고 있는 ‘친노 패권주의’의 실체도 일정 부분 인정했다.

김 위원장은 “역사적으로나 최근의 상황을 보면, 당내 계파 패권주의가 없다고 볼 수 없다”면서도 “하지만 계파주의의 색채가 점차 희석되고 있으며 혁신위가 성공한다면 당내 계파주의는 더욱 희석될 것”이라고 낙관했다.

차기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김 위원장은, 당 내부에서 혁신의 전제 조건인 희생과 헌신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 아쉬운 표정을 지으면서도 “조만간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혁신위가 9월 중순까지 활동, 혁신의 결과물을 추석 상에 올려 국민으로부터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목포 출신 진보성향 재야인사...호남민심 대변 기대

#### 혁신위원 호남쪽 정재용은

10일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으로 합류한 정재용(51) 변호사는 호남 민심을 대변할 인물로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목포 출신인 정 변호사는 학생운동과 노동운동, 인권운동, 시민 사회운동을 해온 광주·전남지역의 대표적인 재야인사로 꼽힌다.

정 변호사는 연세대 경제학과를 나온 뒤 노동운동에 투신, 광주노동조합협의회 기획실장 등을 역임하다 1996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변호사 개업



이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광주전남지부장을 맡는 등 민변 활동을 통해 지역민들의 인권옹호와 사회정의의 실현을 위한 변론을 해왔다. 또한, (재)5·18기념재단 이사 겸 기획위원장을 역임했고, 광주지역 시민단체인 참여자치21의 대표를 맡는 등 시민사회단체 활동도 두드러졌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주승용, 긴급자동차 우선 통행 법률 개정안 발의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 10일 화재나 응급상황 발생 시 긴급자동차 우선 통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긴급자동차에 대한 길 터주는 방법을 '우측 가장자리'로 명시하고 있지만 실제 상황과 맞지 않아 긴급자동차의 우선통행이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해 경찰공무원이나 모범운전자에 교통 신호에 우선권을 부여하고 경찰공무원에게는 신호기를 조작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하고 있지만 긴급구조 업무를 하는 소방공무원에게는 교통을 통제하는 권



한이 없어 소방차와 119구급차 등 긴급자동차의 출동이 지체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 법안은 긴급자동차에 길 터주는 요령을 현행 '우측 가장자리'에서 '양측으로' 수정 및 보완하고, 긴급구조 업무를 하는 소방공무원의 교통 신호에도 우선권을 부여하도록 했으며, 필요한 경우 소방공무원이 교통 신호기를 조작할 수 있도록 해 긴급자동차 우선 통행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주영순, 낙도 천일염 생산자도 지원금 혜택 법률 발의

새누리당 주영순 의원은 낙도지역의 어민뿐 아니라 천일염 생산자들에게도 수산직접지불제(이하 수산직불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법안은 육지에서 8km 이상 떨어진 섬 지역 또는 하루 정기여객선 운항 횟수가 3회 미만인 도서 어가에만 지급되는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지원 대상'에 천일염 생산자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지금까지 천일염 산업은 어업으로 인정받지 못해 수산직불제 지원 대상에서 배제돼 왔다. 이에 지난해 12월 주 의원의 대표



발의한 '수산업법 개정안'을 통해 천일염업이 수산업에 포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산직불제 대상에서는 포함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일어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체 60%에 달하는 천일염 어가가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주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소금산업 종사자들의 정주권 안정 및 소득 보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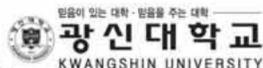
## 2015학년도 <후기> 광신대학교 대학원 신입생 모집안내

### 1. 전형일정

- ① 원서 접수 : 2015. 6. 8(월) ~ 19(금)
  - ② 전형일 : 2015. 6. 22(월) 오전 10:00
  - ③ 합격자 발표 : 2015. 6. 24(수) 오전 10:00
  - ④ 등록기간 : 2015. 6. 24(수) ~ 26(금)
- ※ 참고사항  
- 서류심사 관계로 제출서류는 기간 내에 등기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해야 한다.  
- 필기시험 해당학과 : 신학과(Th.M.), 신학과(M.Div.) - 실기시험 : 음악학과(M.A.)

### 2. 모집학과 및 인원

대학원	학위과정	모집학과	모집인원
일반대학원	석사	신학과(Th.M.)	00
		신학연구학과(M.A.T.)	00
		유아교육학과(M.Ed.)	00
신학대학원	석사	음악학과(M.A.)	00
		신학과(M.Div.)	00
교육대학원	석사	교육학과(M.Ed.)	00
상담치료대학원	석사	상담심리치료학과(M.A.)	00
국제대학원	석사	한국어교육원학과(M.A.)	00



KBS1TV "아침마당" 생방송 출연 (백영숙 이사, 유경선 원장 출연)

빠른 성사! 결혼성사시까지...

# 중매 잘한다~ 성사 잘한다~ 소문!

회장 : 서울대학교 법대졸업 (공공기관 다년제직) 광주시석초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동문 결혼정보 서비스업체 전문대학교

### 초혼

남성

- 의사, 변호사, 의사, 현역사 27-45세
- 판사, 검사, 변리사, 회계사 28-47세
- 공무원(5급-9급) 27-42세
- 사범, 행정고시 합격자 VIP 27-42세
- 삼성, 현대, LG 직원 28-47세
- 은행원, 연구원 29-49세
- 대(중)소기업 직원 27-48세
- 사업가, 자영업 29-39세
- 세무사, 연구원 29-48세
- 국영기업체 직원 29-39세
- 교사, 교수 28-49세

### 재혼

여성

- 전문직 희망 여성 25-38세
- 오케스트라단원, 회사원 26-41세
- 간호사, 유치원 교사 27-42세
- 의사, 약사, 교사 25-39세
-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26-39세
- 공무원(5급-9급) 27-42세
- 정부투자기관 직원 25-38세
- 간호사, 은행원 26-47세
- 학원(음악)원장, 교사 27-42세
- 스튜어디스, 영양사 26-42세
- 미스코리아, 미스전복 27-36세

## 임페리얼 클럽

강남역 7번출구 70m 44년째 810 6층

(02) 521-4405

호남지사 (063) 275-7766